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ewsletter

August, 2016



미션: 복기주변함 Mission U

1.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3.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4.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5.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의 밤
6. 함께하면 쉽습니다: \$ 1,000 모금운동 <http://www.nnkumw.org>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남가주 선교학교를 마치고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지난 7 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72 명의 한인 참석자들과 인도자로 영성과목(이창민 목사)과 이슈과목 (김선혜 목사) 두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바이올라 대학에서 선교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두 분 강사 목사님들은 진지하고 섬세하게 2박 3 일의 선교학교 강의를 통해서 훌륭한 배움의 장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남가주연회 여선교회에서 추진하는 선교학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인여선교회들만의 선교학교 프로그램이 하루 먼저 추진되고 있어 특별히 한인여선교회만의 금요새벽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도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루기 쉽지 않은 영성과목의 연장으로 한인들만의 Interest Group 시간에 추진된 목사님들과의 패널 토의는 더욱 진지한 시간으로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넓혀주는 은혜의 시간으로 모두에게 유익했던 시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어려운 주제로 추진되었던 패널 토의시간을 위해 연합회 고문 목사님도 참석하시어 세분의

목사님들이 다양한 각도로 들려주시는 내용을 통해 폭넓은 이해도 있었고 많은 질문도 오고 가는 역시 이 시대 깨어있는 여성들, 시대를 앞서 가는 여성들임을 스스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중 미국 여성들과 함께 추진했던 Cultural Night 은 올해 새롭게 다양한 나라의 의상들을 소개하는 패션쇼로 한인들은 한복의 다양한 의상을 선보이며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고 고전가락에 맞추어 부채춤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여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별시간은 계속 이어져 프로그램 마지막 날 전체모임의 찬양인도를 한인들이 맡아 특색 있는 영어찬양을 통해 전체 참석자들과 하나가 되는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새 임원을 인준하고 세우는 총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수고해 주셨던 구 임원들께 감사하는 시간과 앞으로 연합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애쓸 새 임원들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순서가 고문 목사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35 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남가주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발전하고 있는 그 저력은 모든 행사마다 역대 회장님들의 소리 없이 돕는 손길과 연합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를 이끌고 나갈 새 회장 (최경애 권사) 및 임원들을 축하하며 정의를 위해 여선교회 연합회 목적에 맞는 사역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글: **최미란 사모**,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전 회장, 전국연합회 친교부장)

> English



Cal-Pacific UMW Mission u, 2016

Mission u, was held from July 21 through 23, by the Cal-Pacific Conference UMW with seventy-two Korean attendees and two speakers: Rev. Chang Min Lee (Spirituality Course) and Rev. Sun Hye Kim (Issue course), at Biola University. I was so thankful that God sent two speakers for the wonderful learning opportunity for this year's mission school. It was such a blessing and privilege for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that all attendees got a

chance to have a Friday morning prayer together. This can be done because Mission u for Koreans by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usually started the program a day earlier unlike other regions. In

addition, a special panel discussion of interest groups with pastors as an extension of spiritual course was well appreciated because it gave us new perspective on current issues as Christians.

Three spiritual advisors joined the panel discussion of homosexuality to give us a wide perspective and extensive knowledge. We all realized that they are living ahead of our time and were proud of these awakened woman leaders while debating the issue. During the culture night with American women, we as Koreans showed traditional Korean clothing at fashion show and performed a Korean fan dance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to bring joy. Also, Korean attendees had a chance to lead worship in English with body movements, so all attendees had a great time worshipping together on the last day of plenary.

On the last day, new board members were confirmed in the plenary and we had a time to recognize past members who have served two years, for further growth, and welcomed new members with spiritual advisors. I have confidence to say that the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would not have succeeded without past board members' helping hands and affection. Lastly, I would like to welcome our new president (Kyung Ae Choi), with new board members who will be leading the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We wish them the best of luck with the upcoming year.



(Written: Millan Choi, Valley KUMC, NNKUMW Mission Team Officer)



북가주 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하나님의 형상

Bienvenidas~! 환영합니다.

2016 년 8 월 5 일 - 6 일 이틀간 Merced UMC 에서 열린 2016 선교학교에 참석한 것은 올해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입니다.

선교학교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드린 개회예배에서, "성경과 인간의 성별"에 대한 메시지는 이번 선교학교의 주제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Wheel of our theological task 라는 간단한 도식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형상을 갖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도식화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한다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지요. "영성과 인간의 성별"을 가르치신 열린교회 권혁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창세기 1 장 27 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나와는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또는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다수 의견에 동조하거나 전통적인 사고에 머물러 생각하기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완전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보냄 받은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관으로 딱딱해졌음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덴동산에 심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절대적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회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모르면서, 연합감리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이 절대적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알게 되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 수 있었고, 이 사실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산타클라라교회의 홍삼열 목사님의 강의로 "라틴 아메리카"를 알아가는 시간에서 일회용 종이 접시에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그렸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부끄러웠습니다. 신앙생활이 저의 삶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 나라들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린 자신에 놀랐습니다. 불과 일 년 밖에 안되었는데 말이지요. "해방신학"이 '전인적인 해방' (정치적, 경제적, 영적, 육체적)을 추구했다는 것을 배우면서, 저의 무지를 깨닫고, 그 운동을 왜곡되게 바라본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은 전인적으로-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복지향상, 구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선교는 결국 현지인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각도의 성도들이 있는 게 정상이며, 이는 사역의 다양성과 방향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이 새겨두고 싶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도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에 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잘 모르고 지내던 성도들이 많았는데,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임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UMW 여성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 그리고 헌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6 선교학교를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선교학교가 벌써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A la pas de Dios~! 안녕히 계세요.

(글: 오 유니스 집사, 산타클라라 한인연합감리교회)

> English



Cal-Nevada Conference KUMw Mission u: The Image of God

Bienvenidas!~ Greetings and welcome!

From August 5th to 6th of 2016, I attended the Mission u, held at Merced UMC, marking one of the best decisions I have made thus far this year.

The opening service of the Mission u was focused on "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clearly and concisely setting the tone and

theme for the rest of the events.

A simple image relating the topic of the wheel of our theological task clarified misconceptions that I held regarding God, rather, establishing a more correct and truer image and understanding of God. In receiving a proper understanding of God, I realized the danger of misconceptions regarding God, which can influence all facets of life, from home-life, to workplace, and most importantly, my morality and values. This image revealed to me that the misconceptions and misunderstandings that I hold regarding other people as well.

The theme, "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is rooted in Genesis 1:27, in which the Scripture discusses the image of God. Reverend Kwon Hyuk In of the Open Door Church delivered a sermon on the passage, elaborating on the importance of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delivering this sermon, Pastor Kwon reminded me of this fact: that I am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all that this entails. The variances found across the different types of people, whether it is differences in race, or culture, or

people since then. Liberation theology is properly tied to whole liberation, relating to the political, economical, spiritual, and physical realms of life. However, I realized that I was incorrectly understanding the movement.

Ultimately, the gospel must impact all the realms of life, not just one facet of it. Also, this generation's mission must be pouring into and growing institutions to impact entire people groups, rather than just going out and evangelizing to individuals. The emphasis must be placed on establishing foundations of faith to encourage and transform future generations of people.

In addition to this, diversity within the church is normal and good and for this reason, many different ministry paths are viable. The spectrum of ministries and paths resulting from the spectrum of people was made known to me as well. In hearing the Reverend's sermons, I realized that the varied gifts that people possess help society as a whole, with the variances in gifts filling the lackings of others. These were words I wanted to hold onto deep in my heart.

Through the fellowship experienced at Mission u, I was able to interact with other members, such as those whose faiths were more matured and developed than mine. Through these interactions, I was challenged to go on a mission trip. Though I was surrounded by familiar faces, I had never had the time to interact with most people. In talking with them about the topic of missions, I saw the sincerity in their faith and their love of God. The ease of conversation revealed to me the closeness made possible through Christian fellowship.

This year's Mission u was short. However, it was still a precious experience. The UMW was able to fervently know the passions behind mission.

Finally, I want to experience thanks and gratitude to all those who made this year's Mission u possible. All their prayers and efforts were fruitfully received. I wait in eager anticipation for next year's Mission u. A las de Dios!~ Thank you and goodbye!

(Written: Eunice Oh, Santa Clara UMC)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지난 7월 23일 Southern NH University 에서 2016년 Mission "u"가 있었다.

40여 명이 등록하여 1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성경공부도 하였다.

올해는 '인간의 성별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김정환 목사님(커네티컷 중앙 한인 감리교회)께서 인도해 주셨다. 목사님께서 성(sexuality)... 아름다운 그러나 조금은 부끄럽기도 한 이 주제를 어찌 다룰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신다.

"인간의 성 만큼 왜곡된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는 제 모습에서부터 그 왜곡된 감정을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관계"인데 인간의 성의 왜곡은 그 관계의 깨어짐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룹토의로 이루어진 시간은 서로의 솔직한 마음 나누기로 이어졌고 각 그룹의 발표를 통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 배웠다. 그동안 남편을 외롭게 만든 게 매우 미안하다고 하시는 한 권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남편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뒤돌아보기도 했다. 진작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아내가 되었을 텐데,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이 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합니다."라는 기도문같이 나눔을 통해 마음을 나누었던 바로 그 시간에 ...새 사랑이 고이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기적은 신비하고 커다란 사건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다. 아주 작은 깨달음이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면 그것이 곧 기적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폭력이 아닌 자비로 자기 자신을 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 참 소중한 나,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선교학교를 통해 배웠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사랑이 내게 온 것이다. 아름다운 기적이다!



(글: 이재숙 권사,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교육부장)

> English



New England Conference Korean UMW Mission u

On July 23, 2016, Mission "u" was held at Southern NH University. 40 people registered for this year's meeting. We were happy to see each other since the previous year. The theme was "Good Gifts that God has give Human Beings, Sexuality." The Reverend Jeong Hwan Kim of Central Methodist Church in Hampton, Connecticut was the leader this year.

When the pastor learned of the theme this year he was a little worried about how he should approach the topic of sexuality. He was understandably shy to have to speak about this subject to a group of

women. Rev. Kim said "Sexuality is a misunderstood subject. Most people perceive it as taboo. Even I was uncomfortable with how to teach about sexuality."

The Rev. Kim asked the people how we can define the Bible as one word. We answered love, obedience and so on, but he said the word that best define the bible is "relationship". And the misunderstanding of sexuality came from broken relationships. During the group discussion we shared heartbreaking stories of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We learned new thing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the other groups.

It touched our heart when one church member shared with us that she regretted making her husband feel alone. We felt we could have been better wives if had known this before. But rather than regret we can remember the quote "Start now, Start today, start in this room, Start with friends in Christ."



We know that miracles are not mysterious or impossible to achieve. A miracle is a small or large thing that can make a massive difference in someone's life. We know that the Lord has told us to treat ourselves with compassion, not violence. We learned to love ourselves and our bodies too.

After Mission "u"...

This miracle takes place in us.

Love is come to our heart

It is a beautiful miracle!

(Written: Jae Sook Lee,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Mission Team, North Boston KUMC)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해마다 7월이면 열리는 선교학교가 올해도 어김없이 북조지아 지역을 달구었다.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16년 선교학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지아 웨잇빌 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총인원 200명 에 한국 여선교회원들이 약 40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의 방향을 연구하고 공부하였다. 이번 선교학교는 애틀랜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목사이신 이상재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수고해 주셨고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애를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말하는 바른 자세히 일러 주셨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목사님의 40 회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모여 있는 여선교회원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매년 선교학교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문제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지구 상에 있는 많은 기독여성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 올바른 기독교 문화와 풍조를 일궈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함께 공부하던 40 여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면서 내년을 또 기약했다.

(글: 김 매리안 사모, 북조지아 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 English

North Georgia Mission U

From July 22 to the 30th, Mission u was held at the Fayetteville United Methodist Church in Fayetteville, GA. During these two days, 200 women gathered for Bible School, 40 of whom were Korean-American.

This Mission U was led by Sang Lee, Associate Pastor at Atlant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His lesson was entitled "Claiming God's Good Gift (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His message taught us what the bible says and teaches in regards to homosexuality. As Christians, these topics are extremely sensitive issues, but I thought it was enlightening.



On the final day of Mission u, we had a small celebration for Pastor Lee's 40th birthday.

Every year at Mission u, without fail, we learn about our role in the world as Christian women and how to deal with social issues as women of God. All 40 of us wait in anticipation for what we will learn at next year's Mission u!

(Written by Marian Kim, President/Language coordinator of North Georgia Conference KUMw Network)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제 22 회 북가주 연회 연합 여선교회 선교 찬양제가 6 월 18 일 산타클라라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찬양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여선교회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찬양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영상보고 속에서 펼쳐지는 행사를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고 벅찬 감동으로 채워짐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찬양과 율동 그리고 연주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2 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찬양을 첫 순서로 어느새 성전 안은 열기가 더해갔고 찬양을 하시는 팀은 물론이요 모두가 하나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북가주연합 여선교 선교 찬양제를 받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다함께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그 동안 준비하신 찬양과 율동, 그리고 악기 연주로 주님을 높혀 드리는 회원들을 바라보며 어느새 우리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제에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며 감격과 감동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차 버렸습니다.

성전안을 가득 메운 300 여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되어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북가주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 찬양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가득찬 이 찬양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결단하는 감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전 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내일을 약속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회장, 산타클라라 한인연합감리교회)

> English



Praise Him!

Forever Praise Him!

On June 18, 2016, the 22nd annual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worship festival was held at Santa Clara United Methodist Church. All glory and honor belong to our God, who granted the privilege and possibility to hold such an event. With one heart,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gathered to worship God, allowing the worship festival to begin. The sermon shared by

the pastor dealt with leading a life of worship, praising God eternally through a life of both prayer and thankfulness. In the midst of the gathering, through the performances and the worship, the greatness of God's love and grace was passionately placed onto our hearts, filling us with conviction and thankfulness. The efforts of the various churches that worked tirelessly and endlessly to prepare their praise, dance, and performances was not put to waste, as the second part of the worship festival began and the routines began. First up in the festival were the pastors and their wives, who led worship, calling the congregation to praise in a zealous and fervent manner, inviting the Holy Spirit to dwell in the midst of the gathering.

Tears of gratitude toward a holy and worthy God fell from the faces of the participants as the offerings of praise, performance, musical accompaniments, and dance were lifted up to Go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as felt throughout, from body to mind, filling us with conviction, as well as with God's grace and love.

The worship festival brought roughly 300 people to the church, uniting all the members as one body serving to bring glory to God. The joyful festival will certainly last forever in the hearts and minds of its participants, remaining as a pleasant memory of God's provision and goodness. This speaks to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limitless nature of God's grace, as well as the pouring out of the Holy Spirit was made evident through this worship; embedded deep into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articipants the reminder to forever praise and honor God.

It is our hope and prayer that in response to the festival and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the saving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redeeming love of God the Father will be made evident through our lives as living testimonies to His goodness. We strive to live each day lifting up praise and glory to God in everything we do.

Thank you, Lord!

We will praise You alone, for You are worthy!

Forever we praise You!

(Written by Mandy Tuggle,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President)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 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 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매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 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 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 년, 2 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 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년 6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 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 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현금 방법)

매달 \$45 또는 1 년에 \$500 을 2 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후원자 명단:

2016 년 후원: 김리자, 임성혜, 김명래,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아콜라교회, 전봉숙, 김정화, 김효순, 송은순, 박나미, 김효순, 장신전, 남가주 연합회, 맨스월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 English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6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Lija Kim, Sunghea Rhim, Myungrae Kim Lee, Kum Ran KUMC UMW, Arcola KUMC, Boong Sook Jun, Jungh Hwa Kim, Grace Song, Nami Park. Hyo Soon Kim, Sin Jun Chang,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Mansfield KUMW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한인 여선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